

군 병사의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 복합적 자아해석의 조절효과

김 욱 란

김 완 일[†]

상지대학교

본 연구는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 변인들(군 생활 적응, 우울 및 지각된 스트레스)과의 관계를 복합적 자아해석 수준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복합적인 자아해석이란 자신의 특성에 근거하여 자신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등 자신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에 따라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이 높은 병사들은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군 생활 적응과 우울 및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에, 복합적 자아해석 수준이 낮은 병사들은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하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이 낮은 병사들은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서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자기개념 복잡성, 복합적 자아해석, 심리적 건강, 군 생활 적응, 우울, 지각된 스트레스

[†] 교신저자 : 김완일, 상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길 83번지 상지대학교 자연과학관 2112호

Tel : 033-738-7847, E-mail : freekwi@sangji.ac.kr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한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에 잘 적응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의미하는 자기개념이다.

자기개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의 총합으로 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문경하, 2007). 최근에 자기(self)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내용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의 두 가지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자기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자기개념의 다면성 또는 다차원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자기개념이 다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주화되어 저장되는 것을 말한다(Shavelson & Bous, 1982). 그리고 다차원성이란 각각의 자기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의 정도를 반영하는 긍정평가도와 부정평가도로 측정된다. 이에 반해 자기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자기 지식 및 정보들을 범주화하여 저장하고 있는 자기영역이나 자기측면들의 인지적 조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러 자기 영역들이 관련을 맺고 조직화되어 있는 구조가 실제로 적응이나 심리적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Showers, Abramson, & Hogan, 1998).

자기개념의 구조에 관하여 대표적인 연구는 Linville(1985, 1987)의 자기복잡성 모델이다. 자기복잡성이란 자기측면(self-aspects)들의 개수와

자기측면들 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자기복잡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측면의 개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측면들 간의 관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측면이란 인간이 다양한 역할, 관계, 행동, 상황들을 경험해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개념화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한다. Linville(1987)은 감정의 극단성 가설과 스트레스 완충(buffering effect)가설을 주장하였다. 감정의 극단성 가설이란 자기복잡성이 낮을수록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전체적인 정서나 자기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완충가설이란 다양한 자기측면을 가진 사람은 어느 한 가지 자기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다른 자기측면들이 스트레스를 완충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복잡성 완충가설에 대한 후속연구들에서 다양한 결과들이 밝혀졌다.

먼저 자기복잡성 완충가설이 지지된 연구들이 있다. 부정적인 자기 관련 피드백에 뒤따르는 자기 도피에 관한 Dixon과 Baumesiter(1991)의 연구와 자기관련 사고의 억압에 관한 Renaud와 McConnell(2002)의 연구 그리고 좌절에 대한 인내력에 대한 연구(Gramzow, Sedikides, Panter, & Insko, 2000)에서는 자기복잡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우울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복잡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연구들(Jordan & Cole, 1996; Koch & Shepperd, 2004)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자기개념이 복잡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복잡성과 심리적 건강이 관련이 없다는 결과들이 있다. 먼저 자기복잡성이 높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연구들

을 살펴보면, 자기복잡성이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Rafaeli-Mor & Steinberg, 2002)가 있으며, 자기복잡성이 높을수록 우울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들(김완일, 김재환, 1992; Woolfork, Novalany, Gara, Allen, & Polino, 1995)이 있다. 다음으로 자기복잡성과 심리적 건강이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건강문제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와 자기복잡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없다는 연구(Hershberger, 1990)가 있으며, 자기복잡성의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Kalthoff & Neimeyer, 1993; Morgan & Janoff-bulman, 1994)이 있다.

Linville(1987)의 자기복잡성 모델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김완일과 김재환(199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에 대한 자기복잡성과 자기통합성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고, 자기효능감(이정은, 2005), 자기개념 명료성(이수현, 2005), 인지적 유연성(김완일, 2008) 등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또한 McConnell 등(2005)은 자기통제 가능성 가설을 제안하며,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자기측면들을 얼마나 스스로 통제하는 것으로 지각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양현지(2012)의 연구에서도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기측면들 간의 조화의 정도가 높을 때 우울과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인지적인 변인들이 자기복잡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조절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개념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자아해석이라는 인지적인 변인이 있다. 자아해석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지각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자아해석의 방식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만족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였다(Markus & Kitayama, 1991). 자아해석에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독립적 자아해석이란 개인이 자신을 인식할 때 자신의 독특한 특성, 능력, 기호, 목적이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며, 자신의 독립성과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자신을 인식할 때 의미 있는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 감정, 소망 등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해석이 적응 및 심리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먼저 적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Du & King, 2012)에서 독립적 자아해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인 특성들과 적응이 상관이 높은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높은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 등의 외부적 요인과 적응이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olpin, Yzerbyt와 Comeille(2011)은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여 공감을 더 잘함으로써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현경자(2010)의 연구에서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성을 중심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체성과 자존감을 증진시키며,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맥락과 상황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다음으로 심리적 건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독립적 자아해석의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 우울이 낮다는 연구(양명순, 2007)가 있으며,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는 연구(김현미, 2004)가 있다. 따라서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각각이 적응이나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를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의 두 가지 자아해석이 같이 발달할 때에 심리적인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다. 현경자(2010)는 한 개인 안에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상호 독립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아해석이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명확하게 지각되어 두 가지 자아해석의 수준이 높은 상태를 복합적 자아해석이라고 하였다. 즉 복합적인 자아해석은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의 긍정적인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 자아해석의 구성개념을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의 표현 정도,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정도, 직접적인 의사전달 정도, 자신의 독특성을 지각하는 정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 친밀한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지각하는 정도,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현경자, 2010; Cross, Morris, & Bacon, 2000; Singelis, 1994).

복합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적응과의 연구를 살펴보면, 독립적인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이 상호보완적으로 발달할 때 심리적

으로 더 적응적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김동직, 한성열, 1998), 두 가지 자아해석과 유사한 개념인 개별성과 관계성의 균형 있는 발달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삶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Dolinger, Perterson, O'Brien, & DiLalla, 1996). 대학생들의 자아해석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박선영, 2005)에서 두 가지 자아해석이 모두 높은 유형이 정서적 안녕과 삶의 만족이 높고 우울감이 낮은 반면에 두 자아해석 중 하나만 높거나 둘 다 낮은 사람들은 주관적 안녕감이 낮으며 우울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을 경우에 심리적·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김동직, 1999; 서동효, 2001; 정은이, 2002; 한기연, 2003). 현경자(2010)의 연구에서는 타인과 구별된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기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련된 존재로서의 자기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게 하는 복합적인 자아해석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상황을 살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심리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군 생활 적응과 관련한 송경재(2007)의 연구에서는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군 생활 적응 수준이 가장 높음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복합적 자아해석은 개인들의 적응 및 심리적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자아해석과 자기개념 복잡성과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다. 개별성과 관계성의 조화로운 발달은 심리적 성숙의 지표로서 한 개인이 다양한 특성을 가질수록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이 더 많다는 연구(김동직, 한성열,

1998)가 있다. 즉 복합적인 자아해석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을 다양한 측면으로 인식하는 자기복잡성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자아해석과 동일한 개념인 자기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독립적인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두 자기관을 동시에 개발하면 다양한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요구가 주어질 때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를 잘한다고 하였다(박선영, 2005). 다양한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복합적 자기관은 스트레스 완충효과가 있다는 자기복잡성과 관련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복합적인 자아해석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연구들이 있다. 첫째, 조은영과 임성문(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을 다양한 측면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명확하게 인식할 때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이다. 복합적 자아해석이 높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명확한 신념을 가짐과 동시에 타인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 일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합적 자아해석은 자기개념의 명확성과 유사함을 알 수가 있다. 둘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측면들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내용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자기구획화(Self-compartmentalization)가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우울, 스트레스 및 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이경미, 2010). 즉,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낮은 자기구획화가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자기구획화가 낮아서 자신을 평가할 때에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섞여있는 경우는 자신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인식하는 복합적 자아해석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복합적 자아해석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자기개념 구조의 차원 간 분화(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의 정도와 우울과의 관계를 서술차원의 자기태도 구조가 조절한다는 연구가 있다(김완일, 1997). 이 연구에서 차원 간 분화가 높다는 것은 자기측면들이 이질적인 차원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개념 복잡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서술차원의 자기태도 차원구조란 자신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조망이 확대된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서술차원의 차원구조는 자신을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복합적 자아해석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자기복잡성이 복합적 자아해석과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군대는 자기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병사들은 군 조직의 특성인 집단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활동의 제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분노와 공격성 등이 나타나며(육군본부, 1999), 그로 인하여 폭행, 우울 그리고 자살의 행동으로 이어진다(장성대, 2003)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하여 단결력이 약화되고, 군조직의 최대 목표인 전

투력의 향상에 저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병사들이 보다 잘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며, 우울 및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잘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정체감(김형형, 2006),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금병규, 2010; 김혜정, 2007), 자아실현(오수중, 2001), 자기분화(한영주, 2010), 자아탄력성(이혜영, 2011) 등의 개인내적 특성과 군 생활 적응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각 개인의 자기개념에 따라 병사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병사들은 계급과 직책에 따라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모습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아들, 학생, 친구, 애인, 동아리 회원 등의 많은 역할들을 인식할 수 있지만 군 생활에서는 계급이나 직책에 한정되어 자기의 측면을 인식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자기복잡성이 낮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과도한 군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군에 입대하는 신세대 병사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함으로 조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관계성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자기를 분명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인 자아해석은 둘 다 인지적인 변인들이다. 자기복잡성은 개인들이 표상하는 자기의 구조적 측면인 자기측면들에 대한 다양함이라고 한다면, 자아해석은 자기개념을 구성할 때에 자신을 인식하는 지각방식을 의미한다. 즉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을 인식하거나 혹은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

에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의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변인들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자기의 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 각각의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두 가지 특성이 모두 자기개념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병사들은 다양한 계급과 직책을 바탕으로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개념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을 같이 고려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특히 군 병사들은 계급에 국한하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복잡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병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기개념의 측면인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인식방식인 복합적 자아해석이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건강을 군 생활 적응과 우울 및 지각된 스트레스의 세 가지 요인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두 변인들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병사를 상담할 때 자기개념 복잡성이 낮은 병사들의 경우에 자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군 생활 적응과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개념 복잡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복합적 자아해석이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 자기개념 복잡성과 우울의 관계를 복합적 자아해석이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자기개념 복잡성과 지각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복합적 자아해석이 조절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강원도 ○○시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비행단의 병사들 2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총 270부의 설문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하고 24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248명이 모두 남성이었으며, 일병 148명(59.7%), 상병 61명(24.5%), 병장 39명(15.8%)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부대의 책임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고, 방문 날짜를 약속한 후에 2013년 2월 2일 토요일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점심 식사 후에 병사들이 휴식하는 시간에 각 생활관에 다니며 설문을 배포하고 실시하였다. 설문 실시 전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각 설문에 대하여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에 설문지를 개인마다 나누어주고 자기개념 복잡성 척도, 자아해석 척도, 군 생활 적응 척도, 우울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의 순서대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작성에는 총 4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연구자는 각 생활관

에서 설문 작성 후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측정도구

자기개념 복잡성 척도(Self-complexity Scale)

자기개념의 분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inville(1985, 1987)이 사용한 성격특성 분류기법을 활용하여 김완일(1997)이 제작한 자기개념 복잡성과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복잡성 척도에는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33개(긍정형용사 17개, 부정형용사 16개)가 포함되어 있다. 자기복잡성 과제에서는 먼저 현재의 자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습과 역할 및 상황들을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적도록 하였다. 그 후에 제시된 목록의 33개 형용사들 중에서 각 모습, 역할, 상황에 해당되는 자신의 특성을 모두 기입하도록 했다. 이 때 피험자들에게 33개 형용사들을 모두 다 한 번씩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한 형용사를 각기 다른 모습에 반복해서 사용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에 사용한 성격특성 형용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자기복잡성에 대한 측정은 H 점수¹⁾와 NASPECT 점수²⁾, H-P, H-N 점수³⁾로 계산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복잡성 점수를 구하기 위하여 Scott, Osgood,와 Peterson(1979)의 H

1) $H = \log_2 n - (\sum n_i \log_2 n_i) / n$

n은 성격특성 형용사의 총 개수(33개); n_i 는 각각의 특정 집단(i번째) 조합에 나타난 형용사의 개수(따라서 $n = \sum n_i$)

2) NASPECT의 수

3) $H-P = \log_2 n_p - (\sum n_{pi} \log_2 n_{pi}) / n_p$, $H-N = \log_2 n_n - (\sum n_{ni} \log_2 n_{ni}) / n_n$

표 1. 자기복잡성 척도에 사용된 성격특성 형용사

1. 고집이세다	8. 상냥하다	15. 지적이다	22. 독선적이다	29. 자신감이있다
2. 경쟁적이다	9. 성급하다	16. 이기적이다	23.활동적이다	30. 조용하다
3. 게으르다	10. 유머가있다	17. 소심하다	24. 인내심이있다	31. 우유부단하다
4. 냉정하다	11. 책임감이있다	18. 솔직하다	25. 경솔하다	32. 반항적이다
5. 다정하다	12. 쾌활하다	19. 이해심이많다	26. 체계적이다	33. 느긋하다
6. 변덕스럽다	13. 편안하다	20. 수줍어한다	27. 진지하다	
7. 보수적이다	14. 예의바르다	21. 단순하다	28. 성실하다	

통계치 공식이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은 피험자가 질문지에 적은 자기모습들의 개수와 각 자기모습들에 적은 형용사 번호들을 넣은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만들어졌다. 자기복잡성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04점까지 계산이 된다.

독립적 자아해석 척도(Independent Self-Construal Scale: ISC)

독립적 자아해석의 측정을 위해서 Singelis (1994)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cale) 중에서 독립적 자아해석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독립적 자아해석이란 자신의 내적 생각이나 정서, 독특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 직접적인 의사전달, 타인을 생각할 때도 관계적인 요소보다는 개인적 특성과 속성을 고려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희정과 조혜자(2003)가 번안한 것을 김현미(2004)가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독립적 자아해석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 자아해석 경향이 높은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Singelis(199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으며, 김현미(200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cale: RISC)

Cross 등(2000)이 만든 관계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cale: RISC)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는가, 나를 정의함에 있어 친밀한 존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공감(empathy), 상호의존성의 측정치들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치들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ss 등(2000)의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개월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3이었고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방희정과 조혜자(2003)가 번안한 것을 김현미(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척도는 Likert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자아해석 경향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현미(2004)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7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72로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 척도(Military Life Adjustment Scale)

Shauffer(1949)가 만든 군 생활 적응 척도를 신태수(1981)가 한국군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군 생활 적응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혜영(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군 생활 적응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군 생활 적응 척도는 심신의 상태, 임무 수행 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태수(1981)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이혜영(2011)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별로는 심신의 상태 .73, 임무 수행의지 .84, 직책과 직무만족 .86,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90, 전체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는 .88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심신의 상태 .66, 임무 수행의지 .80, 직책과 직무만족 .73,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84로 나타났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ohen, Kamarck, &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것을 이

정은(2005)이 요인분석 하여 단축 형으로 수정, 보완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로 경험되는 정도를 측정하며,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하며, 과도한 부담이 느껴지는지에 대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문항인 4, 5, 7, 8번의 4문항은 역점수로 채점이 된다. Cohen 등(198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8이고, 이정은(2005)의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 척도는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상인의 우울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Radloff(1977)의 CES-D를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한국판으로 수정 개발한 것이다. 우울 정서, 긍정적 정서, 대인관계, 신체기능저하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 구성은 거의 드물게(1일 이하, 1점)에서 거의 대부분(5~7일, 4점)까지로 Likert형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문항인 4, 8, 12, 16은 역점수로 채점이 된다. 전경구와 이민규(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87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우울정서 .76, 긍정정서 .87, 대인관계 .77, 신체적 저하 .4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자기복잡성 점수는 Scott의 H통계치 공식이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으며, 복합적 자아해석의 측정은 독립적 자아해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점수 각각의 평균 점수에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점수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현경자, 2010). 이를 위해 자아해석 각각의 전체집단 평균점수를 기점으로 1/2 표준편차 이상 높아질 때마다 1점을 부여하여 여섯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자아해석이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하나의 틀로써 기능하려면 자아해석 정도가 적어도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평균 이하인 경우나 표준편차 1/2까지는 0으로 그리고 표준편차 1/2 높아질 때마다 1점씩 부여하여 각각이 6등급으로 나누어졌고, 이 방식에 의해 복합적 자아해석의 점수는 최소 0에서 최대 12인 연속변수로 측정되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첫째,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 그리고 심리적 건강(군 생활 적응, 우울 및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이 군 생활 적응, 우울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군 생활 적응, 우울 및 지각된 스트레스를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온 경우 센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 각각의 최고점수와 최하

점수를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 후 기울기를 구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자기개념 복잡성, 복합적 자아해석, 군 생활 적응, 우울 및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계

자기개념 복잡성, 복합적 자아해석, 군 생활 적응, 우울 및 지각된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 변인들의 상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기개념 복잡성을 긍정복잡성과 부정복잡성으로 나누었을 때, 긍정복잡성은 스트레스($r=-.15, p<.05$)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부정복잡성은 우울($r=.25, p<.01$)과 스트레스($r=.22, p<.01$)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복합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건강 변인들, 즉 군 생활 적응($r=.23, p<.01$), 우울($r=-.13, p<.01$) 및 스트레스($r=-.18, p<.01$)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r=.01, ns$). 자기개념 복잡성 중의 긍정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하위요인인 자아관계와의 상관이($r=.14, p<.01$) 유의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두 변인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													
2	.73**	-												
3	.69**	.88**	-											
4	.38**	.73**	.36**	-										
5	.01	.03	.11	-.10	-									
6	-.02	-.01	.06	-.10	.76**	-								
7	.04	.07	.14*	-.06	.75**	.44**	-							
8	.07	-.00	.05	-.10	.23**	.19**	.23**	-						
9	.06	.04	.16*	-.12	.29**	.28**	.28**	.55**	-					
10	-.01	-.08	-.03	-.12	.57**	.79**	.29**	.48**	.23**	-				
11	.05	.02	.04	-.04	.15*	.11	.17**	.88**	.41**	.08	-			
12	.08	-.03	.02	-.10	.15*	.17**	.14*	.83**	.31**	.21**	.58**	-		
13	.10	.11	-.01	.25**	-.13**	-.16*	-.13*	-.37**	-.53**	-.13	-.35**	-.25**	-	
14	-.02	-.01	-.15*	.22**	-.18**	-.23**	-.12	-.45**	-.52**	-.17**	-.40**	-.33**	.71**	-
M	4.97	2.04	1.52	.73	1.97	49.16	45.04	81.93	10.80	15.38	27.76	31.33	32.27	26.29
SD	2.13	.82	.62	.52	2.30	7.29	6.05	14.38	2.06	3.00	6.69	6.13	6.37	5.43

주. 1은 복잡성 수, 2는 전체복잡성, 3은 긍정복잡성, 4는 부정복잡성, 5는 복합적 자아해석 6은 독립적 자아해석, 7은 관계적 자아해석, 8은 군 생활 적응, 9는 심신상태, 10은 임무수행의지, 11은 직무만족, 12는 조직 환경과 태도, 13은 우울, 14는 지각된 스트레스

주. * $p < .05$, ** $p < .01$

자기개념 복잡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복합적 자아해석의 조절효과

복합적 자아해석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군 생활 적응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먼저 1단계에서는 자기복잡성을 투입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제 2단계에서는 자기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을 함께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3단계에서는 자기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 그리고 자기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

로 투입하였다. 상호작용 항은 각각의 예측변인들을 센터링 한 후에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개념 복잡성이 군 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복합적 자아해석이 군 생활 적응 수준을 설명하는 정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t=3.64, p < .001$). 또한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19, p < .01$). 즉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이 군 생

표 3.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B	β	t	R ²	ΔR^2
자기복잡성 전체(A)	-.10	-.01	-.09	.00	.00
A	-.11	-.01	-.10	.05	.05
복합적 자아해석(B)	1.42	.23	3.64***	.09	.04
A	2.82	-.16	2.01		
B	1.25	.20	3.24***		
A x B	-1.50	-.26	-3.19**		

주. **p < .01, ***p < .001

활 적응 수준을 추가적으로 4% 설명해주고 있다. 이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센터링 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아해석 각각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에 따라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었다. 즉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이 높은 집단은 자기개념 복잡성의 수준의 높거나 낮음에 따라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복합적 자아해석이 낮은 집단은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군 생활 적응의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자기개념 복잡성이 낮을 때에는

표 4.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평균

	복합적 자아해석	
	낮은 집단	높은 집단
자기개념 복잡성 낮은 집단	65.73	77.16
자기개념 복잡성 높은 집단	76.04	7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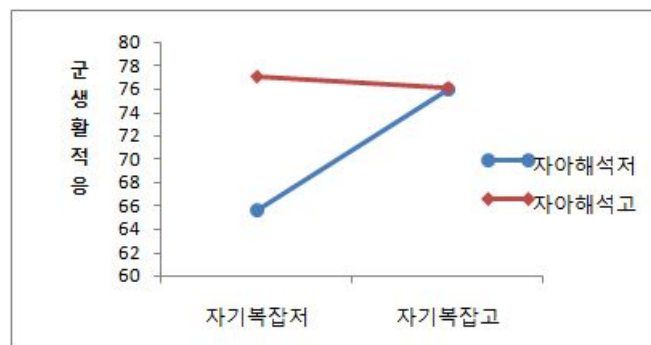


그림 1.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 효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군 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평균은 표 4와 같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복합적 자아해석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개념 복잡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복합적 자아해석의 조절효과

복합적 자아해석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우울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먼저 1단계에서는 자기개념 복잡성을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고, 2단계에서는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을 함께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3단계에서는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 그리고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상호작용 항은 각각의 예측변인들을 센터링 한 후에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결

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기개념 복잡성이 우울수준을 설명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복합적 자아해석은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09, p < .05$). 그리고 우울에 대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69, p < .01$). 즉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이 우울의 수준을 추가적으로 3%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센터링을 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 각각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합적 자아해석이 낮은 집단은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합적 자아해석이 높은 집단은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거나 낮아도 우울에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자기개념 복잡성이 낮은 집단은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

표 5.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우울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B	β	t	R ²	ΔR^2
자기복잡성 전체(A)	.89	.16	1.82	.01	.01
A	.89	.12	1.83	.03	.02
복합적 자아해석(B)	-.37	-.13	-2.09*		
A	-.22	-.03	-.35		
B	-.30	-.011	-1.74	.06	.03
A x B	.57	.22	2.69**		

주. * $p < .05$, ** $p < .01$

표 6.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에 따른 우울의 평균

	복합적 자아해석	
	낮은 집단	높은 집단
자기개념 복잡성 낮은 집단	35.25	32.74
자기개념 복잡성 높은 집단	31.71	3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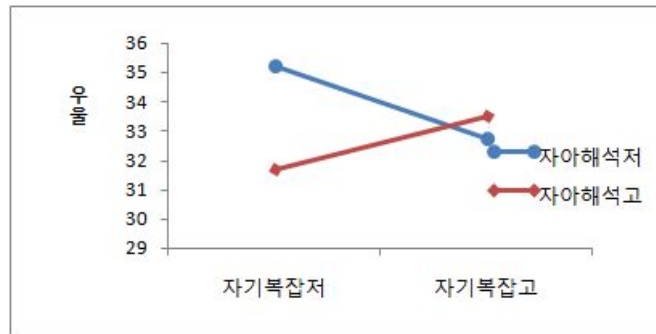


그림 2. 우울에 대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 효과

적 자아해석의 평균은 표 6과 같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복합적 자아해석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개념 복잡성과 지각된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복합적 자아해석의 조절효과

복합적 자아해석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지각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각된 스트레스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먼저 1단계에서는 자기개념 복잡성을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고, 2단계에서는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을 함께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 그리고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상호작용 항은 각각의 예측변인들을 센터링 한 후에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기개념 복잡성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설명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자아해석은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84, p < .05$).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8, p < .05$). 즉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이 지각된 스트레스의 수준을 추가적으로 2%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센터링 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 각각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2개의 회귀식을

표 7.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B	β	t	R ²	ΔR^2
자기복잡성 전체(A)	-.06	-.01	-.15	.00	.00
A	-.06	-.01	-.15	.03	.03
복합적 자아해석(B)	-.42	-.18	-2.84*	.05	.02
A	-.90	-.14	-1.67		
B	-.37	-.16	-2.52*	.05	.02
A x B	.43	.20	2.38*		

주. * $p < .05$

유도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이 높거나 낮은 두 집단 모두에서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합적 자아해석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스트레스를 더 적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자기개념 복잡성

이 높은 집단에서는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는 반면에, 자기개념 복잡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복합적 자아해석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평균은 표 8과 같으

표 8.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의 평균

	복합적 자아해석	
	낮은 집단	높은 집단
자기개념 복잡성 낮은 집단	29.96	28.12
자기개념 복잡성 높은 집단	29.21	2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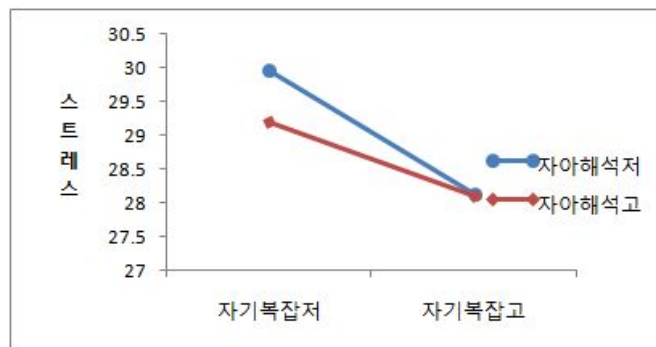


그림 3.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 효과

며,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과 같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에 복합적 자아해석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지각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이 상호작용하여 군 생활 적응, 우울, 지각된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영향이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복잡성, 복합적 자아해석, 군 생활 적응, 우울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4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관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개념 복잡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은 둘 다 자기개념의 인지와 관련된 변인이지만 두 변인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자기개념 복잡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들의 구조적인 측면인 반면에, 복합적 자아해석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인식하는 기능적인 지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개념 복잡성은 자신에 대한 역할, 상황 등의 여러 가지 자기 측면들을 통해 알아보는데, 이러한 자기 측면들을 개인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복합적 자아해석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라 경험적인 것으로써 개인이 파악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두 변인 각각이 심리적 건강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있

기 때문에 두 변인이 심리적인 건강과 관계가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 변인들인 군 생활 적응, 우울 및 지각된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 변인들과의 주효과를 알아본 결과, 자기개념 복잡성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기개념 복잡성이 개별적으로는 심리적 건강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써 자기복잡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질병이 적고(Kalthoff & Neimeyer, 1993; Linville, 1987),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높으며(Gramzow, Sedikides, Panter, & Insko, 2000), 범죄 가능성이 낮다는(Matthews, 2011)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기 복잡성과 우울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들(Hershberger, 1990; Rafaeli-Mor et al., 1999)과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 높은 자기복잡성과 적응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Morgan, Janoff-bulman, 1994)와는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자기개념 복잡성 중에서 부정복잡성은 우울($r=.25, p < .01$) 및 지각된 스트레스($r=.22, p < .01$)와 상관관계가 있고, 긍정복잡성은 지각된 스트레스($r=-.15, p < .05$)와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복잡성을 측정할 때, 전체적인 자기복잡성의 하위요소를 고려하여 긍정과 부정으로 구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지지해 주고 있다. Woolfolk 등(1995)의 연구에서는 부정복잡성이 높을수록 초기의 우울 수준을 통제된 뒤에도 우울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긍정복잡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상적 경험 후의 부적응이 감소하고(Morgan & Janoff-bulman, 1994),

걱정이 줄어들며(김윤희, 2001), 집착 경향성이 낮다는(김혜민, 2005) 연구들이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기복잡성을 긍정 혹은 부정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때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복합적 자아해석과 심리적 건강 변인들과의 주 효과를 살펴보면, 복합적 자아해석은 군 생활 적응($t=3.64, p < .001$), 우울($t=-2.09, p < .05$)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t=-2.84, p < .05$)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해석이 모두 높은 경우에 우울을 보다 적게 느끼며, 심리적 안녕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연구(양명순, 2006)와 일치한다. 또한 독립적,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모두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이 높으며, 우울이 낮다는 연구(박선영, 2005), 그리고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경우 심리적,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다는 연구들(김동직, 1999; 서동효, 2001; 정은이, 2002; 한기연, 2003)과 일치한다. 또한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송경재, 2007)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집단의 군 생활 적응 수준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특성이 강한 군에서 생활하는 병사는 자신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타인 속에서의 자신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복합적인 자아해석의 수준이 낮으면 군 생활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자기개념 복잡성과 군 생활 적응, 우울 및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관계에서 복합적 자아해석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복합적 자아해석은 자기개념 복잡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t=-3.19, p < .01$)와 우울과의 관계($t=2.69, p < .01$),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와의 관계($t=2.38, p < .05$)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에 따라 자기개념 복잡성이 군 생활 적응이나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이 높은 병사들은 자기개념 복잡성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군 생활 적응과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이 낮은 병사들은 자기개념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군 생활 적응과 우울 그리고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자기개념 복잡성이 낮은 병사들은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군 생활 적응을 더 잘하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개념 복잡성이 낮다고 할지라도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을 높여주면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기개념 복잡성이 낮은 병사들을 상담할 때, 병사들이 자신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합적 자아해석이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 변인들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구획화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경미(2010)의 연구에서 자기구획화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다양한 내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높은 자기복잡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이경미

(2010)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은영과 임성문(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복잡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자기개념 명확성과 복합적 자아해석은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는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차원 간 분화와 서술차원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완일(1997)의 연구에서 차원 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다양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서술차원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자기조망이 확대되어 이원적 관점에서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복합적 자아해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완일(1997)의 연구는 본 연구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대하여 자기개념 복잡성뿐만 아니라 복합적 자아해석이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즉 자기개념 복잡성이 높은 장병들보다는 자기개념 복잡성이 낮은 장병들의 경우에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건강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복합적 자아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금까지의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대부분 대학생들이나 환자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복잡성이 낮은 군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자기복잡성 연구가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군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과 심리적 건강을 돕기 위하여 자기개념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각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복합적 자아해석의 능력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복합적인 자아해석의 능력이 향상되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들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또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서 군 생활 적응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울 및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을 낮추는 것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 생활을 하는 병사들은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상담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개념 복잡성에 대한 연구 중에 자기개념 복잡성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있다(Kawahito, Hori, & Otsuke, 2010). 그들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매일 자기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게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울 수준이 감소함을 밝혔다. 따라서 자기개념 복잡성을 높이고, 복합적 자아해석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공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육, 해, 공군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 참여자의 분포에서 이병이 없으며, 군 간부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군의 모든 계급의 장병들에게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육, 해, 공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측정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Linville(1985)의 성격특성 분류과제 방법(H통계치)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택된 33개의 성격특성 형용사를 통해 자기복잡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설문 참여자들이 그들 자신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성격특성 형용사들이 모두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설문참여자들이 자기측면을 기술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들이 자신을 적절히 잘 묘사하는 성격형용사를 추가하도록 하거나 자기측면을 기술하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복잡성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었으면 한다. 최근에 자기복잡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측정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Luo, Watkins, & Lam, 2009; Schleicher & McConnell, 2005)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H통계치와 이러한 측정방법들을 병행하여 자기복잡성을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인 자아해석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다른 자아해석의 척도를 사용하여서 복합적 자아해석의 구성개념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각 개인에게 공존하는 자아해석의 두 가지의 측면을 하나의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타당화가 이루어져서 복합적 자아해석의 구성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군 생활 적응 척도도 오래전에 개발되어서 현대의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군 생활 적응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가 필요하다.

셋째, 자기개념의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자기개념 복잡성이란 인지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한 개인의 자기

개념이 얼마나 다양하며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자기복잡성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먼저 자기구획화(compartmentalization) 이론이 있다(Shower, 1992). 그는 자기개념의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기개념의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기개념의 구조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자기조망(김완일, 2012)이 있다. 자기조망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기구조가 양극적인지 아니면 이원적인지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자기복잡성이 양적인 측면이라면 자기조망은 질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자기개념 복잡성과 자기개념의 인지구조를 설명하는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의 정의와 관계성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자기개념 복잡성에 대한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자기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그 구조와 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역동적인 체계이다(Epstein, 1973). 따라서 한 개인의 자기개념 복잡성 또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 개인의 자기개념의 구조와 내용의 변화 그리고 발달의 양상에 따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금병규 (2010). 군복무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지지 및 스트레스가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 김완일 (1997). 자기평가와 자기분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완일 (2008). 자기복잡성과 인지적 유연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715-734.
- 김완일 (2012). 군 병사의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자기조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6), 3131-3149.
- 김완일, 김재환 (1992). 대학생의 자기 긍정감과 자기 복잡성 및 우울 성향과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10, 249-270.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완일, 김재환 (1993). 대학생의 자기 통합성과 자기 복잡성이 스트레스 및 성패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11, 115-141.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윤희 (2001).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자기개념과 자기복잡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4). 성별에 따른 자아해석 양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형 (2006). 군생활적응과 자아정체감과 관계 분석 및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민 (2005). 자기복잡성, 상위정서, 경험수용 및 집착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2007). 병사들의 사회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임파워먼트 및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하 (2007).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 및 평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05). 대학생들의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서울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2(3), 71-92.
- 방희정, 조혜자 (2003). 관계적 자아의 암묵적 표상. 미간행.
- 신태수 (1981). 군대 조직 구성원의 자아정체감과 군대생활에서의 적응과의 연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효 (2001). 집단에 대한 애착 및 문화적 자기관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재 (2007). 개별성-관계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8(1), 1-12.
- 양명순 (2006). 자아해석 방식이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7(2), 85-105.
- 양명순 (2007). 자아해석 양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아존중감·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지 (2012). 자기복잡성과 우울, 지각된 스트레스, 삶 만족 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수종 (2001). 신병교육훈련생의 자아실현과 군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군본부 (1999). 병영 스트레스 원인과 대책. 대

- 전: 육군본부.
- 이경미 (2010). 자기복잡성과 자기구획화가 우울, 스트레스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현 (2005). 자기복잡성과 자기개념 명료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 (1963). 군대생활의 적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5). 자기복잡성과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 (2011). 병사들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대 (2003). 군내 폭행사건 및 자살사건의 실태와 예방대책.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정은이 (2002).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 사회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 임성문 (2012). 자아해석과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간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와 자기복잡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93-519.
- 한기연 (2003). 개별성-관계성과 자기위로능력 관계에서 자의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78-89.
- 한영주 (2010). 자기분화 및 사회적 지지와 군생활 적응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현경자 (2009). 역경 극복을 돕는 성인 한국인의 긍정성 탐색: 긍정적 태도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3-42.
- 현경자 (2010). 중도장애,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 경험자의 자기해석 복잡성과 심리적 안녕: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2(4), 193-222.
- 현경자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의 안녕-관점의 다각화에 기반한 자기긍정성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4(2), 241-271.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58-396.
- Cross, S. E., Morris, M. L., & Bacon, P. L. (2000). The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91-808.
- Dixon, T. M., & Baumesiter, R. F. (1991). Escaping the self: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lex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363-368.
- Dolinger, S. J., Perterson, L. A., O'Brien, S. P., & DiLalla, D. L. (1996).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f the self: An autobiograph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68-1278.
- Du, H., & King, R. B. (2012). Placing hope in self and others: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self-construals, locus of hope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 332-337.
- Epstein, S. (1973). The self-concept revisited or a theory of a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 28(5), 404-416.
- Gramzow, R. H., Sedikides, C., Panter, A. T., & Insko, C. A. (2000). Aspects of self-regulation and self-structure as predictors of perceived emotional distr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2), 188-205.
- Hershberger, P. (1990). Self-complexity and health promotion: Promising but premature. *Psychological Reports*, 66, 1207-1216.
- Jordan, A., & Cole, D. A. (1996). Relation of depressive symptom to the structure of self-knowledge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530-540.
- Kalthoff, R. A., & Neimeyer, R. A. (1993). Self-complex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test of the buffering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6, 327-349.
- Kawahito, J., Hori, M., & Otsuke, Y. (2010). Effects of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improving self-complexity on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1, 178-193.
- Koch, E. J., & Shepperd, J. A. (2004). Is self-complexity linked to better cop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72(4), 727-760.
- Linvil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Luo, W., Watkins, D., & Lam, R. Y. H. (2009). Validating a measure of self-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4), 381-386.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thews, S. K. (2011). Self-complexity and crime: Extending general strain theory. *Justice Quarterly*, 28(6), 863-902.
- McConnell, A. R., Renaud, J. M., Deab, K. K., Green, S. P., Lamoreaux, M. J., Hall, C. E., & Rydell, R. J. (2005). Whose self is it anyway self-aspect control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self-complexity and well-be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1-18.
- Morgan, H. J., & Janoff-bulman, R. (1994). Positive and negative self-complexity: Patterns of adjustment following traumatic versus non-traumatic life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63-8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afaeli-Mor, E., Gotlib, I. H., & Revelle, W. (1999).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self-complex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341-356.
- Rafaeli-Mor, E., & Steinberg, J. (2002). Self-Complexity and well-being: A review and research syn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79-86.
- Renaud, J. M., & McConnell, A. R. (2002). Organization of the self-concept and the

- suppression of self-relevant though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79-86.
- Schleicher, D. J., & McConnell, A. R. (2005). The complexity of self-complexity: An associated systems theory approach. *Social Cognition*, 23, 387-416.
- Scott, W. A., Osgood, D. W., & Peterson, C. (1979). *Cognitive structur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Washington, D. C.: V. H. Winston & Sons.
- Shauffer, L. F. (1949).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Mifflin.
- Shavelson, R. J., & Bous, R. (1982).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3-17.
- Showers, C. (1992). Compartmentaliz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knowledge: Keeping bad apples out of bun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036-1049.
- Showers, C. J., Abramson, L. Y., & Hogan, M. E. (1998). The dynamic self: How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change with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478-493.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cep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Wolfin, K. A., Yzerbyt, V. Y., & Corneille, O. (2011). On reducing an empathy gap: The impact of self-construal and order of judgmen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 553-562.
- Woolfolk, R. L., Novalany, J., Gara, M. A., Allen, L. A., & Polino, M. (1995). Self-complexity,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form and content within the self-sche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08-1120.

원 고 접 수 일 : 2013. 03. 01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4. 26
게 재 결 정 일 : 2013. 05. 16

The Relations between Self-Complexity and Psychological Health among Soldiers: Moderating Effects of Complex Self-construct

Kim, Ok-Ran

Kim, Wan-Il

Sangji Univeristy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the complexity of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health was moderated by complex self-construct among soldiers. Complex self-construct refers to self-images which were yielded based on various sources from people's own interpretation of other's thoughts about themselves and their own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ed that complex self-construct moderated the effects of complexity of self-concept on psychological health variables(i.e., adjustment, depression, and stress). In other words, for those soldiers with high level of complex self-construct the complexity of self-concept was unrelated with the psychological health. However, for those soldiers with low level of complex self-construct, the higher levels of complexity of self-concept predicted the better status in psychological health.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level of complex self-construct should be considered in interpreting the relation between complexity of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health.

Key words : *complexity of self-concept, complex self-construct, psychological health, military life adjustment, depression, perceived stress*